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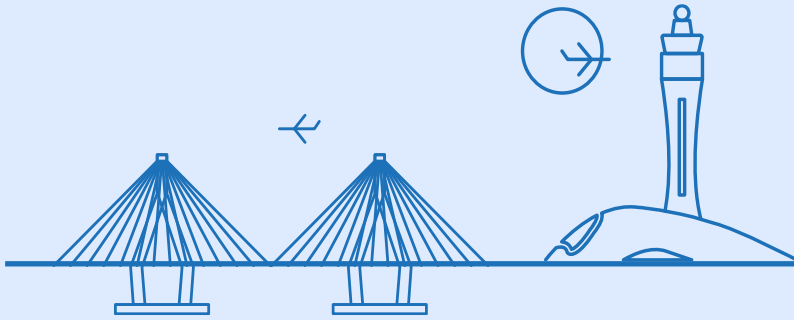
발행일 2025. 7. 24.(목) 통권 제301호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연락처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인천광역시 말라리아 발생 현황
- 0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6 홍보자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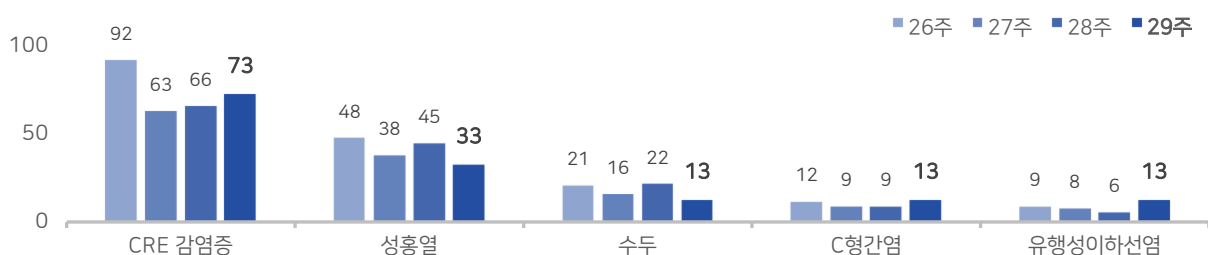
주간 감염병 소식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26,222건, 수두 18,534건, 성홍열 7,480건, 백일해 5,162건, 유행성이하선염 4,161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2,039건, 성홍열 809건, 수두 744건, C형간염 275건, 백일해 252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5. 7. 23.(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5년 누적기간(1주차~29주차)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29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총 155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2025년 26주~2025년 28주) 평균(175건) 대비 20건 감소함
- 신고수 상위 5개 감염병은 CRE 감염증 73건, 성홍열 33건, 수두 13건, C형간염 13건, 유행성이하선염 13건 순서임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2페이지)을 참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5				동기간대비(1-29주)				동기간대비(1-29주)				
	29주	28주	27주	26주	2025	2024	증감	5년평균	2025	2024	증감	5년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0
수두	13	22	16	21	744	703	▲ 41	522	18,534	18,496	▲ 38	14,693	
홍역					2	2	- 0	1	65	47	▲ 18	23	
장티푸스					1	2	▼ 1	1	21	21	- 0	22	
파라티푸스						1	▼ 1	1	8	7	▲ 1	9	
세균성이질				1	2	2	- 0	2	34	23	▲ 11	2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1	13	5	▲ 8	5	211	150	▲ 61	132	
A형간염	1			3	39	43	▼ 4	43	648	745	▼ 97	1,447	
백일해	2	1	2	3	252	1,938	▼ 1,686	438	5,162	13,736	▼ 8,574	3,789	
2급 유행성이하선염	13	6	8	9	231	215	▲ 16	184	4,161	4,092	▲ 69	4,348	
수막구균 감염증									7	13	▼ 6	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1	- 0	1	
폐렴구균 감염증		3			20	24	▼ 4	18	290	283	▲ 7	232	
한센병									1	3	▼ 2	2	
성홍열	33	45	38	48	809	297	▲ 512	226	7,480	3,394	▲ 4,086	2,378	
VRSA 감염증									1	1	- 0	1	
CRE 감염증	73	66	63	92	2,039	1,892	▲ 147	1,382	26,222	22,526	▲ 3,696	19,072	
E형간염	1		1	1	16	21	▼ 5	11	450	389	▲ 61	329	
파상풍				1	2	3	▼ 1	1	12	16	▼ 4	13	
B형간염					10	12	▼ 2	9	129	133	▼ 4	178	
일본뇌염										1	▼ 1	0	
C형간염	13	9	9	12	275	310	▼ 35	269	3,226	3,825	▼ 599	4,481	
말라리아	4	11	10	5	58	64	▼ 6	40	309	361	▼ 52	287	
레지오넬라증		1		1	10	19	▼ 9	11	280	213	▲ 67	220	
비브리오패혈증								0	4	6	▼ 2	4	
발진열					1	5	▼ 4	1	7	15	▼ 8	6	
프프가무시증					1	3	▼ 2	3	171	781	▼ 610	538	
렙토스피라증								0	19	20	▼ 1	28	
브루셀라증									4	5	▼ 1	3	
3급 신증후군출혈열					3	2	▼ 1	2	97	140	▼ 43	122	
CJD/vCJD					3	5	▼ 2	2	30	35	▼ 5	37	
덴기열			1		5	7	▼ 2	4	48	106	▼ 58	51	
큐열				1	1	1	- 0	1	29	37	▼ 8	28	
라임병								1	15	17	▼ 2	12	
유비저									3	1	▲ 2	2	
치쿤구니아열									1	2	▼ 1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1	▼ 1	0	110	67	▲ 43	75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		▲ 2	1	
엡폭스									4	9	▼ 5	7	
매독	2	5	5	4	93	85	▲ 8	89	1,243	1,552	▼ 309	1,398	
매독(선천성)					1		▲ 1	1	9	6	▲ 3	8	

- 29주차(2025. 7. 13. ~ 2025. 7. 19.)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5. 7. 23(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025년 통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21-2025)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이며 엡폭스, 매독, 매독(선천성)은 최근 2년(2024-2025)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2021-2025) 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아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풍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니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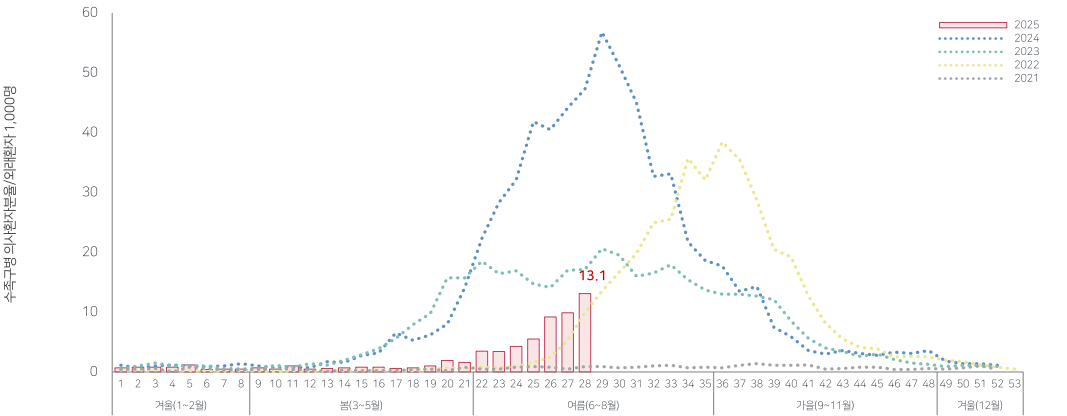
주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감시 현황

- (전국) 28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1명으로 전주(9.9명) 대비 증가

단위: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5년							
	21주	22주	23주	24주	25주	26주	27주	28주
전체	1.6	3.5	3.4	4.3	5.5	9.2	9.9	13.1
전국 0-6세	2.2	4.1	4.0	6.1	7.7	12.9	14.0	18.5
7-18세	0.4	2.4	2.2	1.3	1.9	2.6	2.4	2.3

2021-2025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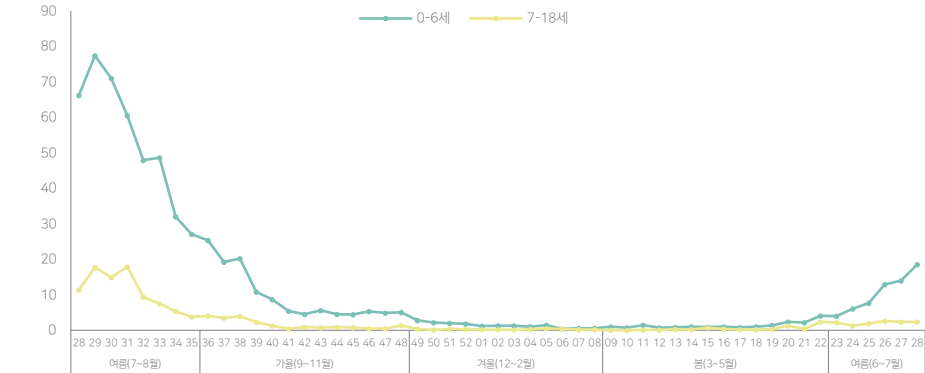


1)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2025년 28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최근 1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 28주차(2025.7.6.~2025.7.12.) 표본감시 현황은 2025.7.21.(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5년도 28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10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인천광역시 말라리아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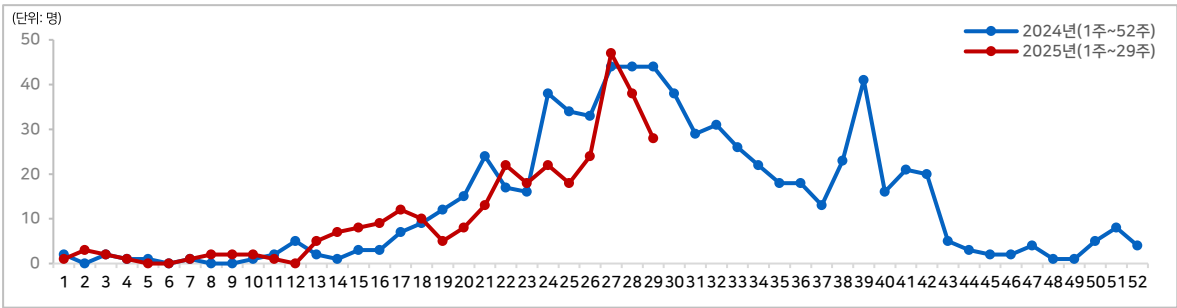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 (전국) 2025년(1주~29주) 총 309명(29주 신규 28명), 전년 동기간 361명 대비 52명(14.4%) 감소
- (인천) 2025년(1주~29주) 총 58명(29주 신규 4명), 전년 동기간 64명 대비 6명(9.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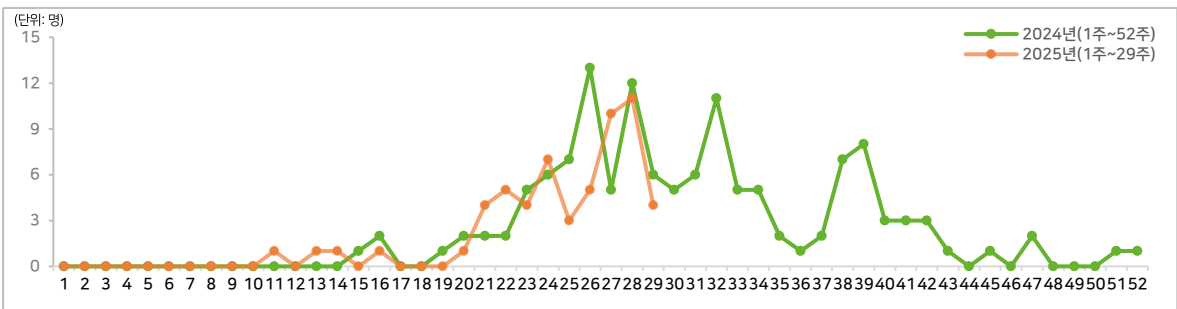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2주	23주	24주	25주	26주	27주	28주	29주
전국	누계	114	131	153	169	194	242	269	269
	주간 신규발생	22	18	22	18	24	47	38	28
인천	누계	14	18	25	28	33	44	52	52
	주간 신규발생	5	4	7	3	5	10	11	4

(전국) 전년 대비 주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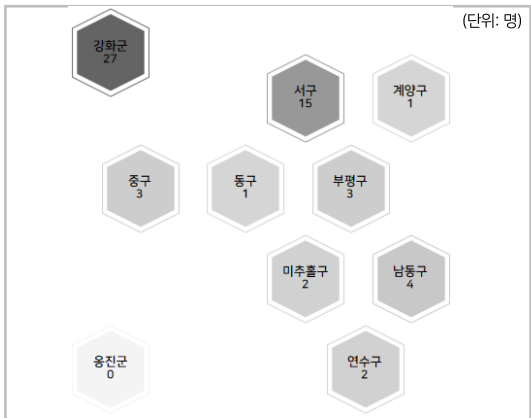
(인천) 전년 대비 주별 발생 추이



지역별 발생 현황(주소지 기준)

- (신고수) 2025년(1주~29주) 강화군 27명(46.6%), 서구 15명(25.9%), 남동구 4명(6.9%), 중구·부평구 각 3명(5.2%), 미추홀구·연수구 각 2명(3.4%), 동구·계양구 각 1명(1.7%) 순으로 발생
- (발생률) 2025년(1주~29주) 강화군 39.02명, 서구 2.38명, 중구 1.84명, 동구 1.70명, 남동구 0.82명 순

지역별 발생 분포(신고수)



지역별 발생 분포(발생률)



국내 집중호우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등 수해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음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 전· 후와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된 물이 닿거나 일정시간(약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폐기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함
- (모기매개 감염병) 비오고 난 후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및 일본뇌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모기 유충 서식지인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매개모기가 주로 흡혈하는 야간(밤 10시~새벽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
 - 외출 시에는 모기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 점검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
-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접촉성 피부병도 주의하여야함
 - 피부나 눈·코의 점막이 설치류·가축 등 배설물로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라증이나 접촉성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장갑(고무장갑) 등을 착용,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또한,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환경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해야함

감염병 포커스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내 현황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임재형

- 모기는 여러 질병을 매개하는 중요한 감염병 매개체로,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 여행의 증가로 국내외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모기 매개 질환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함

[국내 발생 질환]

- 말라리아는 5월부터 10월 사이 경기, 강원 북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벡스 말라리아(*vivax malaria*)가 주기적인 발열을 특징으로 하는 주요 모기매개 질환임
 - 임상적으로는 주기적인 발열(약 48시간 주기), 심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혈액검사에서는 혈소판 감소가 흔히 관찰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간에 잠복한 원충까지 제거하는 프리마퀸을 포함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임
- 일본뇌염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최근에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50대 이상 성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볍지만 일부는 심각한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한 항바이러스제 없이 대증 치료를 실시, 국가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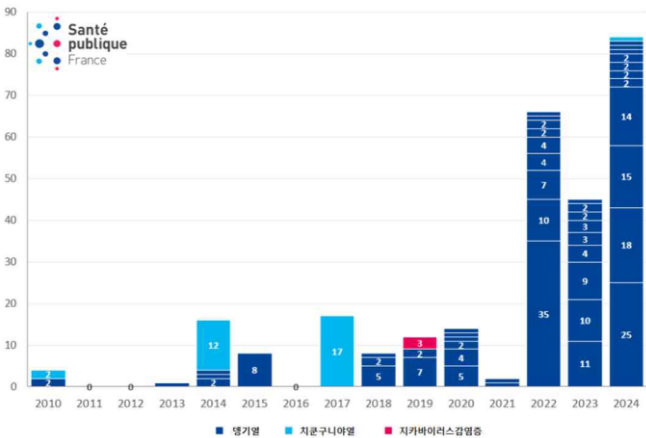
[해외 유입 질환]

- *Aedes*속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Dengue, Zika바이러스 감염증, Chikungunya열은 국내에서는 자체 발생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Dengue, Zika바이러스, Chikungunya열은 각각 발열·출혈, 임신부 감염 시 태아 소두증, 극심한 관절통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 특별한 치료제 없이 대증요법으로 치료함
-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림프사상충, 황열 등 해외 모기 매개 질환의 유입 위험이 상존하므로, 의료인은 국내 질환 관리와 더불어 위험 지역 여행자 대상 예방접종 안내 등 해외 유입 질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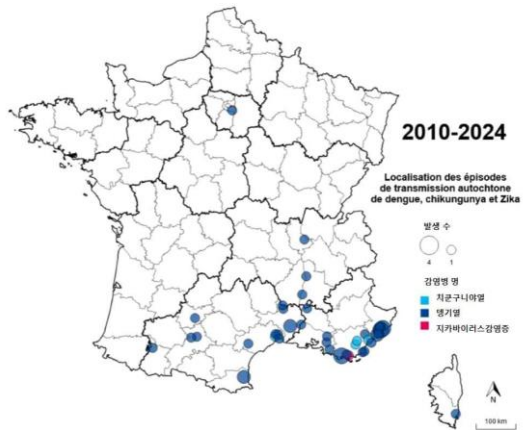
국외 덴기열/치쿤구니아열/지카바이러스감염증

- (프랑스) '25년 모기 매개 감염병 감시 강화로 덴기열 및 치쿤구니아열 지역감염 발생 등 확인

-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를 통해 전파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프랑스의 81개 지역에 흰줄숲모기가 분포하고 있어, 프랑스 보건당국은 흰줄숲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기간('25.5.1.~11.30.) 동안 감염병 감시 강화 조치를 시행함
- '25년 감염 발생은 현재까지('25.5.1.~7.8.) 치쿤구니아열 지역감염 25명 및 해외유입 761명, 덴기열 지역감염 1명 및 해외유입 552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1명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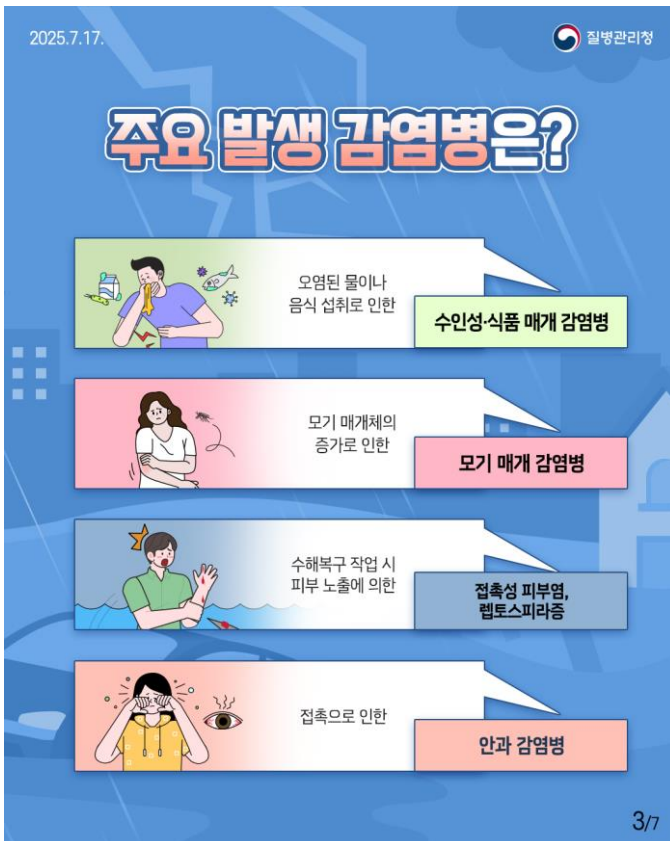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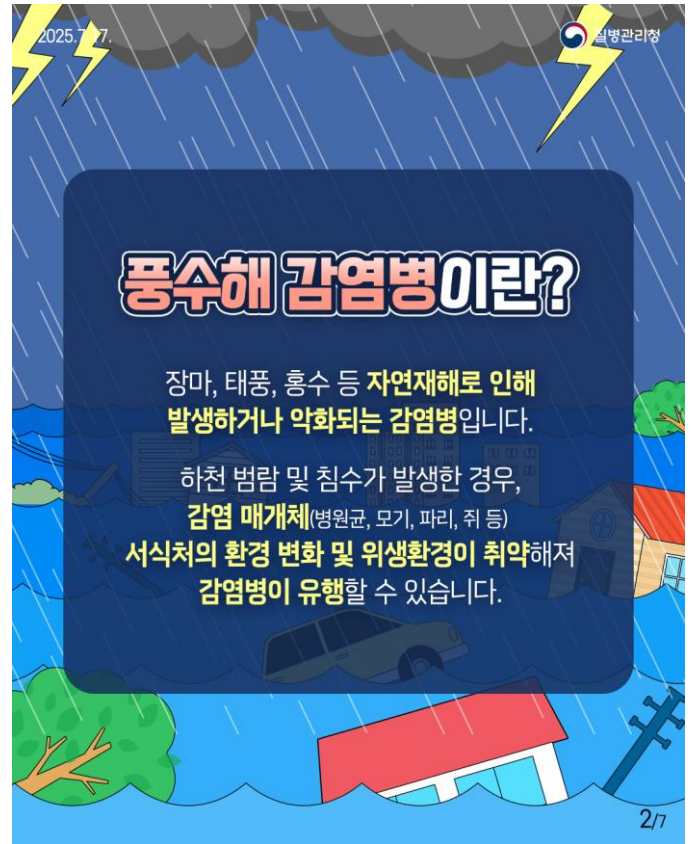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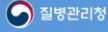
프랑스 '10년~'24년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지역감염 환자 발생 현황



프랑스 '10년~'24년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지역감염 발생 지역

- 프랑스에서 덴기열과 치쿤구니아열 지역감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하며, 보건당국은 그간 지역감염 발생이 보고되지 않은 곳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모기 매개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감염 환자 신고의 중요성, 모기 물림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모기 번식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내에서는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발생 보고는 없으며, 해외유입 사례만 보고 되고 있음
-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함



2025.7.17.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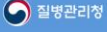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3시간 간격으로 모기피해제 사용하기
-  야간활동 자제하기(일몰 후~일출 전)
-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하기
-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하기
-  물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제거하기
-  모기에 물린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5/7

2025.7.17.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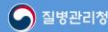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 처리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하기
-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근육통 등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6/7

2025.7.17. 

올바른 손씻기가 가장 중요!

안과 감염병 예방수칙

*유행성각결막염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 진료 받기



7/7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모기기피제 사용

야간활동 자제
(일몰 후~일출 전)

야간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야외활동 후 샤워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

고인물 등
모기 서식처 제거

질병관리청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